페미니즘 상품화의 위험

이상화

이화여대 교수 · 한국여성연구원 원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대중화된 용어다. 그러나 막상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이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해 씌어진 모든 책이, 또 여성이 쓴 모든 책이 페미니즘 출판물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페미니즘' 출판을 논하려면 페미니즘이 무엇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페미니즘은 다양하고 상이한 이론과 실천을 포괄하지만 공동의 지향을 갖는다. 페미니즘은 단일한 이론의 일관된 체계로 묶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은 여성운동의 역사에 등장한 다수의 이론들과 재개념화의 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자 동시에 그러한 지향을 공유하는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론이나 실천이 '더 페미니스트적'이거나 '덜 페미니스트적'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문화적 집단이나 활동가 집단도 인식론적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 페미니즘을 페미니즘이 되게 하는 것은 동일한 이론적 체계나 실천적 전략이 아니라, 다양하고 상이한 역사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공유되는 지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페미니즘과 비페미니즘을 구별하는 척도가 된다. 어떠한 이론이나 실천이 페미니즘이라는 우산 개념 아래 범주화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여성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당하고 있는 억압과 차별을 '옳지 않은 것'으로 느끼는 '도덕적 감수성'에 기반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 억압의 물질적인 조건과 가치 이념적인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향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페미니즘과 비페미니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많은 문화상품들이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선전되고 광고되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과 편견은 확대 재생산된다. 예컨대 몇해 전에 '페미니즘 문학의 정수'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이 있다. 그 소설은 페미니즘적 지향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화 전략에 의해서 페미니즘 소설의 대표작으로 선전되었다. 그러나 그 소설은 페미니즘이 마치 남성에 대한 복수심이나 적대감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실천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데 한몫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되고 피상적인 이해는 반페미니즘적 반격의 근거가 되고 있다.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성이 정의롭고 평등하며 평화롭게 사는 억압없는 사회이다. 페미니즘이 저항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다양하고 상이한 이념과 가치, 관습과 제도인 것이다. 이것들의 대행자는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페미니즘과 비페미니즘을 가르는 기준은 '남성적대적'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기존의 성차별적/남성중심적 가치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과 태도이다. 이러한 문제와 무관한 책들을 '비페미니스트적'이라 한다면, 이를 옹호하고 강화하는 책들을 '반페미니스트적'이라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상품화가 자칫 빠져들기 쉬운 위험에 비판적 안목을 가진 출판 관계자와 독자들만이 진정한 페미니즘 출판의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

출판저널

1998년 9월 5일 제242호
격주간 · 매월 5, 20일 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초점 2 출판사들 힘모아 창고난 해결한다
문화유통북스·현대출판유통·서울북클럽 등

표지 4 장엄한 한국 건축미학 담은 사진집 《종묘》

출판시론 5 시대 따라 상상력 권하는 새 목록 절실 – 이중한
새 세계문학전집을 반긴다

저자 초대 6 《너그러움과 해학》 펴낸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
7 《20세기의 한국미술》 펴낸 김영나 교수

특집/책 속의 페미니즘 8 내가 뽑은 페미니즘 도서, 그 '최고와 최악'
김정란/변정수/이진우/변재란/박미라/
차현숙/김정일/신수정/정대현
10 여성작가가 만드는 여성 이미지 왜곡 – 노혜경
11 페미니즘 책들은 안팔린다? – 한기호
12 여성의 눈으로 새롭게 읽는 동화와 우화

신간 읽기 13 미셸 페로 엮음 《여성의 역사 4》를 읽고 – 박진숙

해외서점 탐방 14 남성동성애자 서점 '프린츠 아이젠헤르츠' – 박진희

인터넷 출판항해 15 여성의 목소리 담은 웹사이트 – 노수경

출판화제 16 먼 이국 땅에서 한국인 뿌리찾기
18 '그 때 그 시절'을 돌아보는 역사
20 잊혀진 책들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

책갈피 산책 17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군대위안부》를 읽고 – 변영주
19 임재해 엮음 《안동문화의 수수께끼》를 읽고 – 고영진

가상대담 22 위대한 개혁사상가 다산(茶山)과의 대화 – 박석무

만화 23 책과 오대리 – 박시백

이달의 출판광고 24 효과적인 변형광고와 눈에 띄는 캐릭터 8 – 마정미

서평 26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 유학의 자연철학》 – 이현구
유흥준 《조선시대 화론 연구》 – 유준영
27 김인걸 외 《한국현대사 강의》 – 도진순
28 오광수 《이야기 한국현대미술·한국현대미술 이야기》 – 이영욱
와타나베 아키오 《현대일본의 국제정책》 – 김기석
29 루스 밀크맨 《공장이여 잘 있거라》 – 이대훈

이 책 그 사람 30 《지식생산·학문전략·대학개혁》 펴낸 강내희 교수
《검은 사슴》 펴낸 한 강씨
31 《전설 속의 거장》 펴낸 조희창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다시 보는 사진집 48 16 김수남 《서울 진오기굿》

표지/배병우 · 종묘 정전(正殿) 일부.
(관련기사 4쪽)